

성도의 벗 9

198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9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벗 어린이란

성도의 빛

1987년 9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킨.

고문 : 휴 더블류 피녹,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스 엠 페러머어, 데릭 에이 커스버트.

통 권 : 제257권, 제23권, 제 9 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7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연 제 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성 근
 International Magazine PBMA8709KO
 PRINTED IN KOREA 9/87
 © 1987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빛은 중국어,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로는 월간으로 인도네시아어, 타히티어 및 타이어로는 격월간으로 그리고 아이슬란드어로는 계간으로 발행됩니다.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빛의 해외 구독료는 항공편 10,000원(미화 12불), 선박편 7,000원(미화 8불)입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소년란

2 대관장단 메시지 : 40 기적을 행할 준비를 갖추어
 잃어 버린 대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7 방문 교육 메시지 : 42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검소한 생활-생활 방식 있음니까?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8 거룩한 집 주님의 집 48 그리스도를 이야기함
 리차드 엠 롬니 비비안 하머

18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다른 사람을 들어올려 주는 기쁨
 로널드 이 폴먼 장로

성도의 빛 어린이란

2 뉴스에 나오는 친구들

24 찰리 3 친구들 솜씨
 에일린 디 텔포드

27 여러 세기에 걸친 4 경전 이야기 :
 나의 사명 마음의 변화 제 2부
 제리 엘 재카드

6 영웅과 여걸들 :
 엘리자 알 스노우

29 별로 활동적이 아닌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회원을 돌봄 8 다 함께 나누는 시간 :
 칼로스 이 애시 장로 행복한 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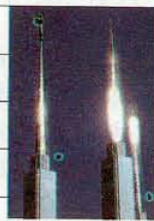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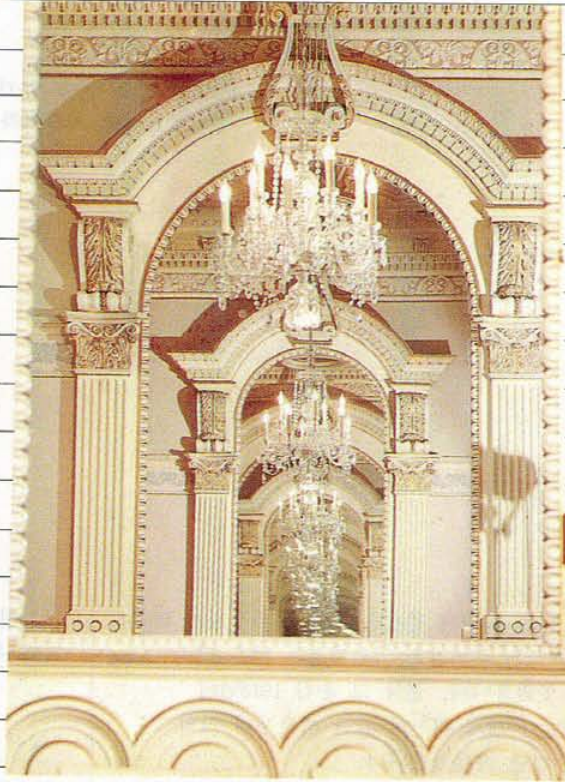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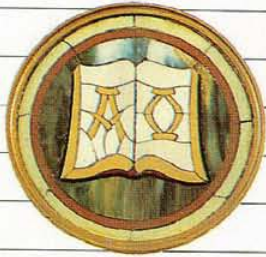
32 경전에서 결혼 생활의 팻 그레이엄

단합을 찾음
 스펜서 제이 콘디

교회 및 지역 소식

35 성전으로 이끌려 감
 샤론 엠 하킨슨

36 소렌 옛스버그 : 복음의
 그의 인생 행로를 결정함
 쟈 앤더우드 핀보로



잃어 버린 대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일보좌

일

마 전에 나는 불란서 중심을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좁메강을 가로지르는 낮은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그 순간 1918년에 휴전이 조인되고 제일차 세계 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거의 칠십 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천 명의 군인이 바로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격전장에 널리 퍼진 무덤 위의 깨끗하고 흰 십자가가 그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주며 서 있습니다.

나는 일차 대전 때 미육군 제77 보병 사단 소속이었던 “잃어 버린 대대”에 관한 기사를 읽었던 일이 있습니다. 한번은 전쟁 도중에 이 대대가 완전히 적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부족했습니다. 부상자를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 대대는 적의 항복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되는 공격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고립된 절망적인 기간이 한 동안 흐른 다음 77 사단의 다른 부대가 진격하여 “잃어 버린 대대”을 구출했습니다.

기자들은 이 부대원들이 전우를 구출하기 위한 사랑의 십자군 임무를 띤 것같이 보였다고 특별했습니다. 이 부대의 대원들은 좀더 술선 수범했고 좀더 대담하게 싸우고 좀더 용감하게 죽어 갔습니다. 감람산에서 행하신 불멸의 설교 한

구절이 마음 속에 메아리쳤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잃어 버린 대대”를 구조함

그 “잃어 버린 대대”와 그 대대를 구하기 위하여 치른 엄청난 대가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이웃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잃어 버린 대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장애자, 노인, 과부, 병자의 “잃어 버린 대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독이라고 하는 황폐한 광야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청춘이 가고 건강이 약해지고 육체적인 힘이 쇠약해지고 희망의 빛이 점점 더 희미하게 꺼져 갈 때 이 거대한 “잃어 버린 대대” 사람들은 관심을 지닌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해 낸 어떤 십 삼 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가난하고 나이 많은 과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떤 와드에 속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소년들은 멋진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적인 프랭크가 크리스마스 정신에 좇아 그들의 돈을 그 계획하고 있던 파티가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세 명의 나이 많은 과부를 위하여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할 때까지는 그들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년들은 새로운 모험에 대한 열의를 지니고 커다란 통닭, 감자, 야채, 크랜베리(일종의 열매) 및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잔치에 쓰는 물건을 모두 다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그 귀한 선물을 들고 그 과부들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십 삼 세 소년의 그 특유한 탁한 음성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을 노래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 옛날 영광스러운 밤에 천사들도 그보다 더 아름답게 노래부르지는 못했으며 세 동방 박사도 이보다 더 뜻깊은 선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랑 : 병고치는 향료

무심한 말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킨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의 “잃어 버린 대대”가 또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사례를 살펴보겠는데 책이라고 합니다.

책은 소년 시절에 늘 아버지에게 심하게 말대꾸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만 십 칠 세일 때 유난히 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책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집으로 가서 가방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으나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간에서 우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들을 지나 막 대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책, 네가 떠나는 이유 가운데 큰 부분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점에 대하여



그들은 그 귀한 선물을 들고 그 과부들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을 노래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과 함께 모든
인류의 “잃어 버린
대대”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내가 환영한다는 것을 기억해 다오. 그리고 나도 너에게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하리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스 정거장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는 표를 샀습니다. 그는 버스에 앉아서 점점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큰 사랑이 있어야 했던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사과했던 것입니다. 아빠가 그에게 다시 오라고 하신 것이며 여름의 대기 속에서 계속 메아리치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책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빠가 자기에게 보여 준 것과 똑같은 성숙함과 선함과 사랑을 보여 드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책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표를 구입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는 밤 자정이 지난 직후에 도착해서 집으로 들어가 불을 켜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친이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의자에 앉아 있었었습니다. 그는 책을 올려다 본 순간 의자에서 일어났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품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이후 집에 있었던 마지막 몇 년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세월의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꺾고 아들이 가족이 흩어지고 가정이 붕괴된 그런 “잃어 버린 대대”의 한 사람이 되기 전에 아들을 구한 아버지가 있었었습니다. 사랑이 결속시키는 끈과 땀과 향료였었습니다.

또 다른 “잃어 버린 대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우며 어떤 사람은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누구나 소속되어 있는 또 다른 대대가 있습니다. 그 대대는 모든 인류의 잃어 버린 대대, 영원한 죽음을 겪게 될 운명을 타고난 대대가 될 수도 있었었습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경전에서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고전 15:21~22)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낙원은 상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잃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세상의 구세주의 탄생을 따르는 그 큰 기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선언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한번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이사야 61:1) 이것은 우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잃어 버린 대대”를 구출하기 위한 거룩하신 계획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자께서는 언제나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치려야 할 무서운 약속을 하나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을 드신 다음 겻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제자들로부터 버림 받고 침해를 당하고 재판받고 굴욕을 당하신 다음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비틀거리며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행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실 수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인류, 지구 및 그 위에 살았던 모든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를 손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을 때 그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보다 나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책과 그의 아버지는
서로의 품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이후 집에 있었던
마지막 몇 년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세월의 하나였습니다.”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눅 24 : 5~6)

이런 감동적인 말씀과 함께 모든 인류-지상에 살고 죽어간 또 앞으로 죽어야 할 이 “잃어 버린 대대”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함께 선언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사람을 끝없는 죽음으로부터 구해 준 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선생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생 이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활의 모범이십니다. 그러나 모범 이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의원이십니다. 그러나 의원 이상이신 분입니다. 인류라는 “잃어 버린 대대”를 구출하신 그분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평강의 왕자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며 곧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 (교성 110 : 4)

나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그가 살아 계시며 그분의 가르침과 복음이 우리가 신앙과 성실 가운데서 그분을 향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사람을 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일차 대전 당시의 “잃어 버린 대대”의 이야기는 정복당했다고 생각했으나 구출된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2. 오늘날 우리가 구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잃어 버린 대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 노인, 과부, 병자, 서로 등지고 사는 가족,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무지한 사람의 “잃어 버린 대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은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또 다른 “잃어 버린 대대” 즉 영원한 죽음을 겪을 운명을 지닌 모든 인류의 대대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4.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평강의 왕자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며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분의 복음은 우리가 신앙과 성실 가운데서 그분을 향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사람을 구할 권세가 있습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우리 생애에서 구세주의 역할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전한다.
2. 이 기사 내용 중에서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 수 있을까? 감독이나 정원회 지도자로부터 전하는 메시지가 있나?

검소한 생활— 생활 방식

목적 : 검소하게 산다는 말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이해함.

우리가 자신과 가족을 잘 돌보고자 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화평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어떤가?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검소하게 생활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생활하도록 권고해 왔다.

검소한 생활의 지혜는 고대 시절부터 인식되어 왔다. 요셉은 애굽인에게 칠 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앞으로 흉년이 닥칠 것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도록 권장했다. 고대 회파의 작가인 이솝으로부터 개미와 베짚이에 관한 우화가 나왔다. 이 이야기는 검소한 생활의 원리를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베짚이는 풍요한 시기에 겨울이 오면 무엇이 필요하게 될까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미는 열심히 일하며 식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게 될 시기에 대비하고 있었다. 개미는 자신있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으나 베짚이는 미래에 대하여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생각했더라도 그저 운이 좋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필요한 식량을 저장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생활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화평한 마음으로 미래를 대하고 싶어한다면 다음 여섯 분야에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문맹 퇴치 및 교육, 사회 및 직장 진출, 재정 및 자원 관리, 가정 생산 및 비축, 건강, 사교적-정서적 및 영적인 힘이다. 우리가 이 모든 분야에서 준비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함에 마음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는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검소한 생활이란 우리가 가진 것을 신중하고 검소하게 사용하며 현재 필요한 것을 현명하게 준비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일반적인 지침을 주셨다. 그러나 그 지침을 우리의 생활 방편으로 삼도록 결정해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어떤 와드에서는 자매들이 각자 비상 준비 상자를 만들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다. 매주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지도자들은 자매들이 그 상자에 비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품목을 하나씩 보여 주었다. 많은 자매들이 이 준비 상자 선물을 가족에게 성탄 선물로 줄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이 상자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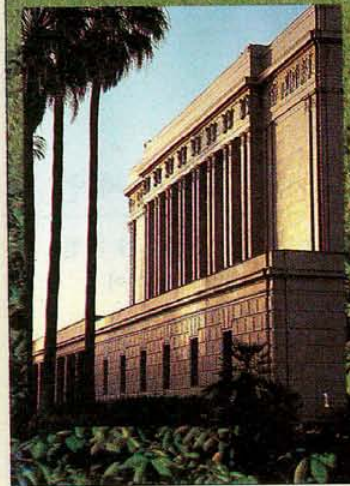
우리가 검소하게 살 때 또한 다른 사람을 좀더 잘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솔로 지부에서는 자매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숟가락씩 따로 모은 후 그 쌀을 매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비록 이 인도네시아 자매들의 수입이 월 평균 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명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여섯 분야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이 모든 분야에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계획할 때 주님의 영이 도움을 주시도록 간구한다. 윈더 자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내일 어떤 시련이 닥쳐 오더라도 내일을 위한, 평생 동안 내일을 위한 가장 최선의 준비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고 약속하셨읍니다.”□

방문교사를 위한 제언

1. 왜 여섯 가지 준비 분야가 개인 및 가족의 복지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토의한다.
2. 왜 짜임새 있는 준비가 마음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지 토의한다. 왜 마음의 화평은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도 중요한가?



거룩한 집 주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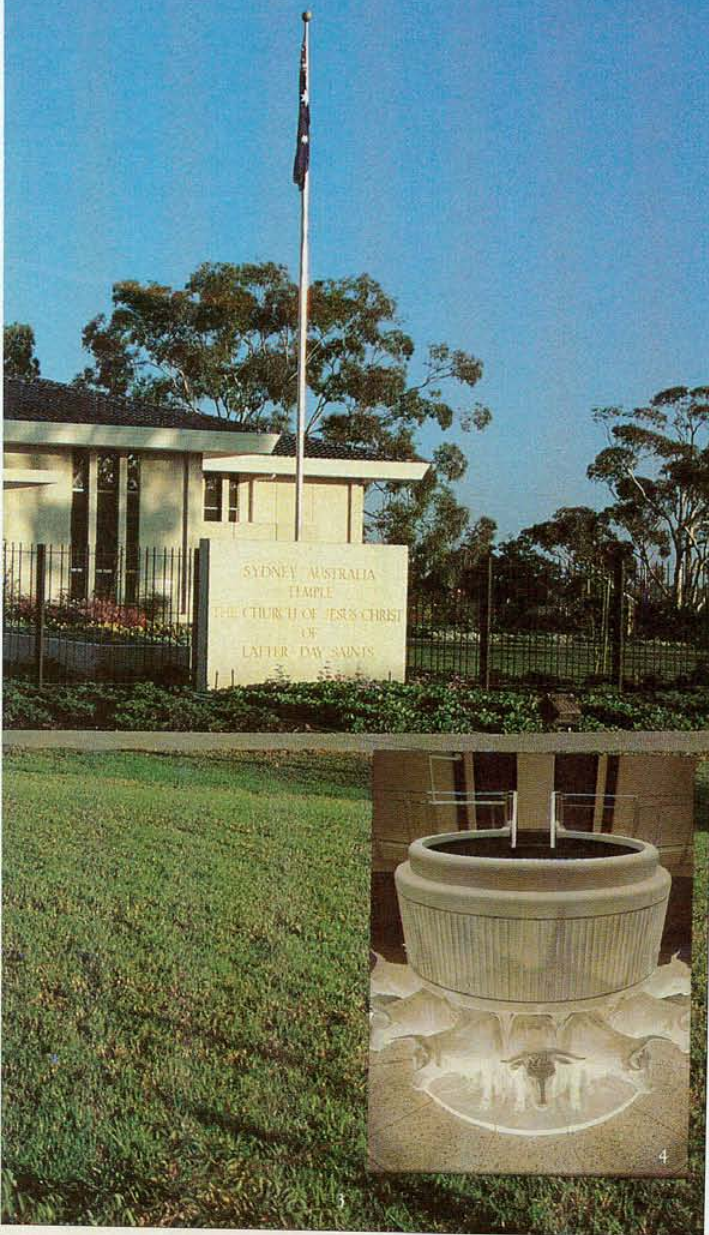
리차드 엠 림니

거룩한 성전,
주님의 집은
오아시스에
비유할 수 있다. 이곳은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세상에서 새롭고 신선한
휴식을 주는 곳이다. 그 벽
내부에는 모든 것이
화평스럽다.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을
뒤에 버려 두게 된다.
이곳은 아름답고 경건한
건물이지만 무엇보다도 영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인간은
이해력을 얻기 위하여 또
약속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하여 이곳으로
온다. 이곳에서 예언자와
신권 지도자가 영감받기
위하여 기도한다.
이곳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등과 같은 거룩한
의식을 행한다. 이곳에서는
결혼이 영원하게 되며
가족은 영원히 인봉받게
된다.

화강암을 잘라서 성전을
만들고 개척자인 기술공이
좋은 나무로 장식을 하든지

현대식 성전 벽에
스페인어나 중국어나
독일어로 금박 글자를
새기든지 그 건물이
존재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막대한
기술과 노력과 자원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그런 희생은
넘어서서 훨씬 더 큰 희생이
있으니 곧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 자아를 극복함,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헌신 등, 영원히
계속되는 부를 얻기 위하여



일지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곳이 성전이며 거룩한 집이다. 주님은 이곳에서 예언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은 이곳에서 그의 자녀와 성약을 맺으셨다. 그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셨고 고대 미대륙에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날 온 세상의 주님의 집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이 행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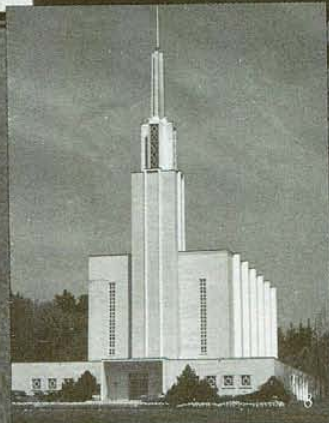
“힘을 다하여 나의 이름으로 이 집을 지은 너희 형제와 내 백성의 마음을 기쁘하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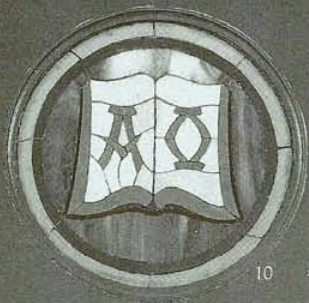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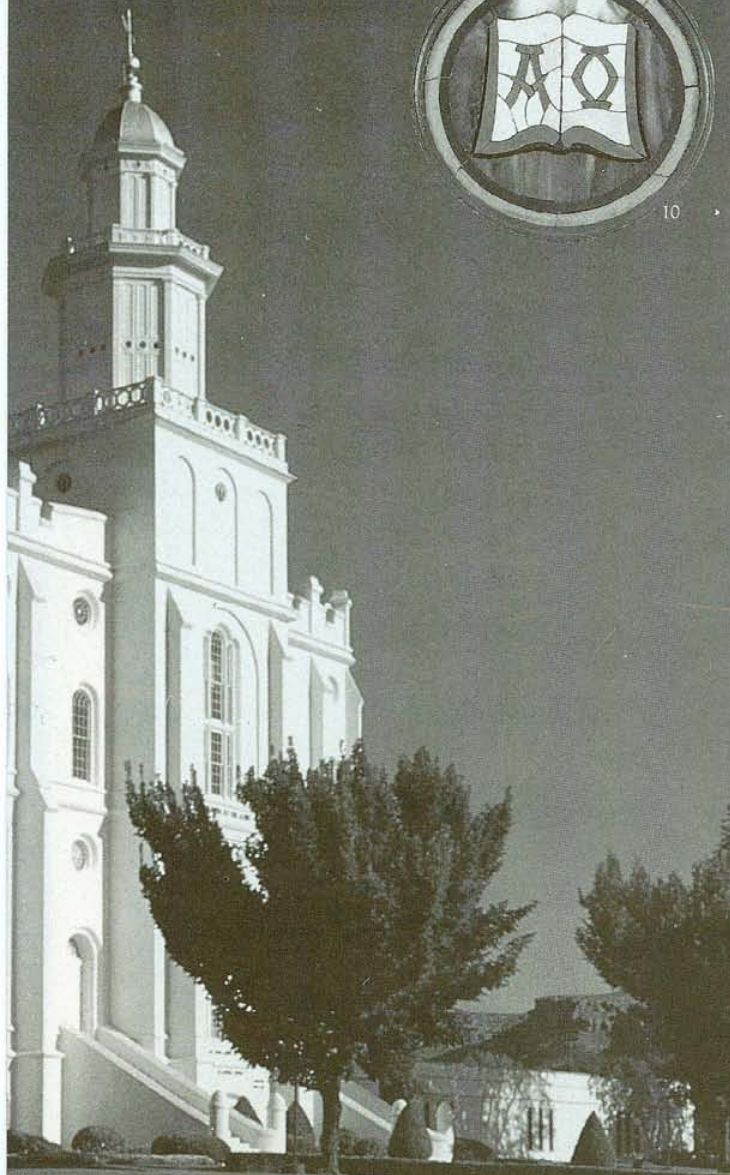
“보라, 나는 이 집을 기쁘게 받아들여이니,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리라. 나는 자비를 베풀어 이 집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모습을 나타내리라.

“참으로 나의 백성이 나의 계명을 지키며 이 거룩한 집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종에게 나타나 나의 음성으로 저들에게 이야기하리라.

“참으로 수천 수만의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서 부어 주는 축복과 나의 종들이 이 집에서 부여하는 엔다우먼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라.

“이 집의 명성은 외국에까지 널리 퍼지리니, 이는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쏟아질 축복의 시작이니라.”
(교성 110:6~10)





10

“여러분은 이 세상의 창조와 또 우리의 첫 부모가 에덴 동산에 놓인 것에 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는지 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되어 모든 일에 반대되는 것이 있는 우리 세상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담과 이브는 인생에서 불행과 함께 기쁨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교회 퀘리스트럼, 성전, 11페이지)

“죽음 이후에도 가족 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의 거룩한 의식이 그 방편을 제공해 줍니다.” (고든 비 힝클리 “왜 이런 성전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전, 1981년, 6페이지)

“이 집이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영광과 하나님의 집, 곧 당신의 집이 되게 하시며, “당신의 백성이 이 집안으로 들어오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며” (교성 109:16~17;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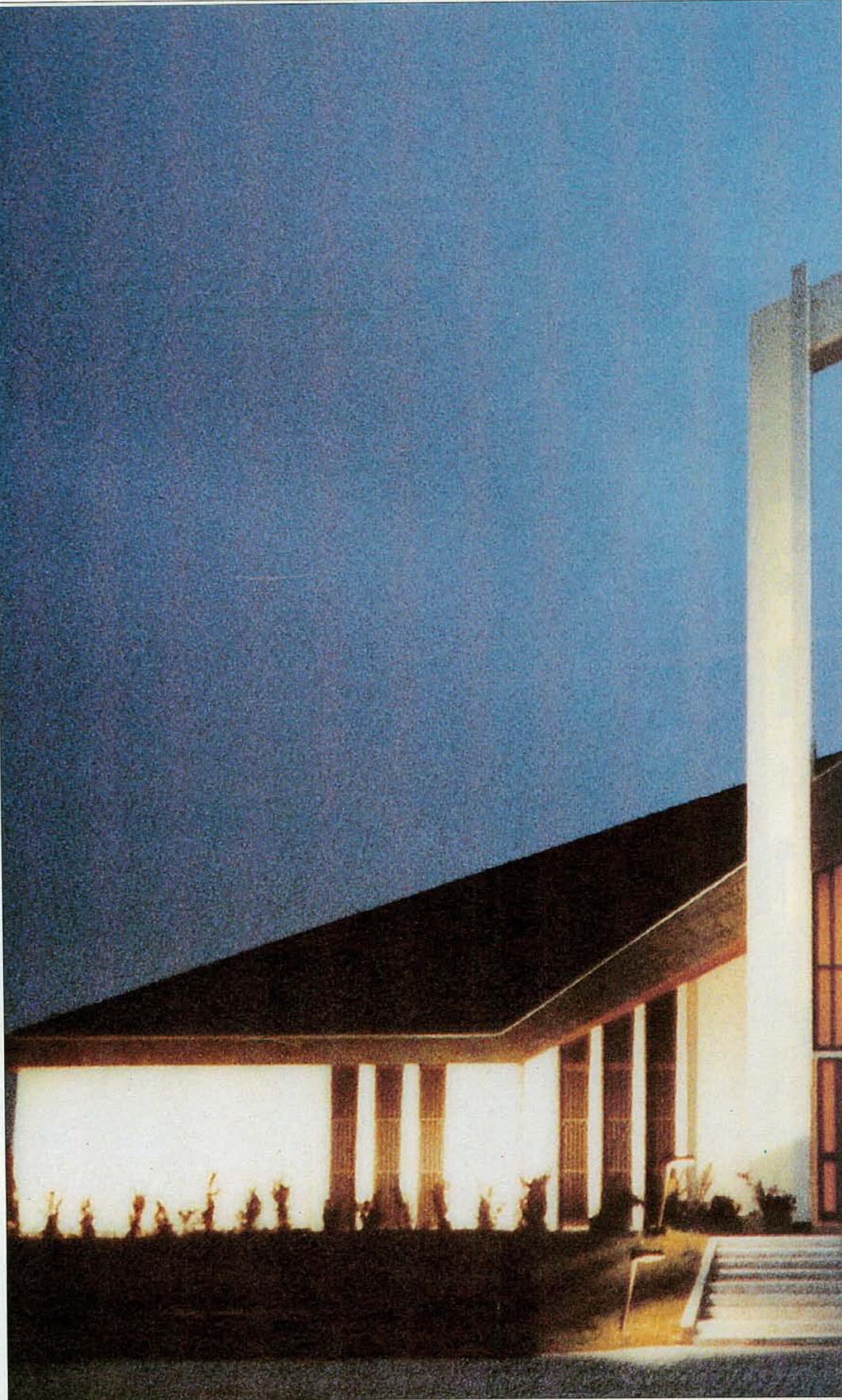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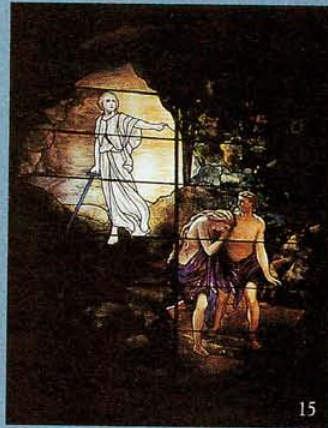
“성전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 가족을 조직합니다. 가족은 일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영구적이고 영원한 조직입니다. 그것은 인봉하는 신권의 권세와 권능에 의하여 가족이 ‘영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무덤 저편에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영원히 영구적인 조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에이 디어더어 터틀, “예언과 약속”, 성전, 54페이지)

“성전, 주님의 집, 신권의 교육과 화평과 성약과 축복과 계시의 처소에 거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은사와 축복의 집인 성전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행되는 의식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의혹과 신비에 싸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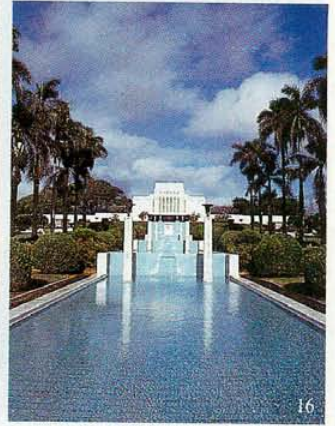




14



15



16

간직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존 에이 윌소우, “성전을 바람”, 성전, 78페이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은 집안에서 의식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너희 씻음이 내게 가납되겠느냐?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모세에게 명하여 장막을 지어...약속의 땅에 집을 짓게 하여 창세 이전부터 숨겨 온 이 의식들을 드러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기름부음, 너희 씻음, 너희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너희 성회...는 나의 거룩한 집의 의식으로써 제정되나니, 나의 백성들은 이러한 집을 지어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항상 받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이 집이 건립되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곳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나타낼 수 있게 할지이다.

“이는 내가 창세 이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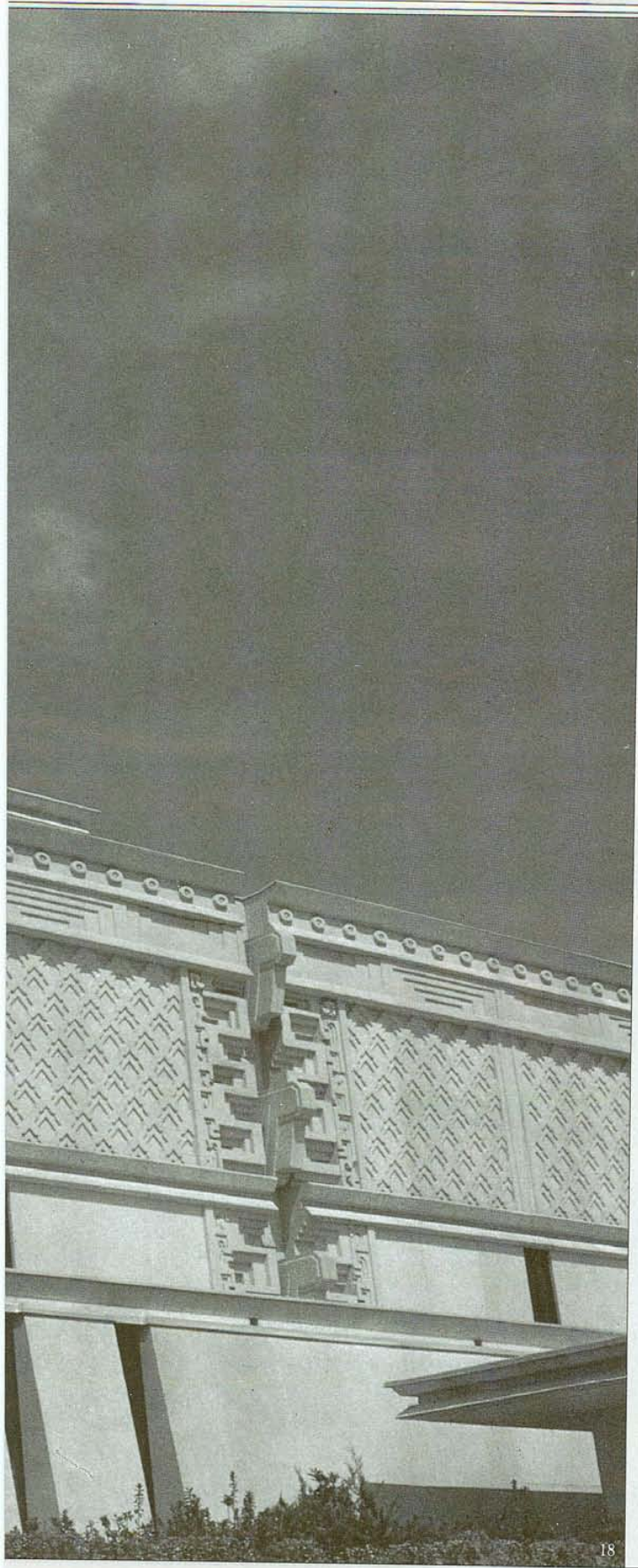
숨겨 온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일을 나의
교회에 드러내 보이려
함이라.

“또 나는 이 집에 관한
모든 일과 그 집에 관한
신권...을 나의 종 요셉에게
보여 주리라.” (교성
124 : 37~42)

“만일 성전에 가서 그
가르침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합당한 영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좀더
승화된 느낌을 갖게 되며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곳을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계획은 지극히 송고합니다.
그 계획은 영감에 찬
것입니다. 대 선생이신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제자의 생활에서 발췌한
공통적인 경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겨자씨에 대하여, 진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것들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성전 그 자체가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밤에 완전히 불이 다 켜진 성전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빛에 싸인 주님의 집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와 영감이 끝없이 영적인 암흑으로 빠져들어가는 세상에서 신호등으로 우뚝 서 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거룩한 성전, 소책자, 1982년, 7페이지)

“최상의 준비는 주님을 믿는 신앙, 완전한 회개, 기도, 간증 등과 같은 복음의 기본 원리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가 있으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경험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명과 속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전에서 행하는 것은 모두 다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 증거하며 우리가 사랑과 봉사와 충성과 헌납에 대한 그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가르쳐줍니다. 성전은 모두 다 문자 그대로 주님과 주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에 참석할 준비를 함, 교회 필름스트립, 1984년)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고전 15:29, 32, 4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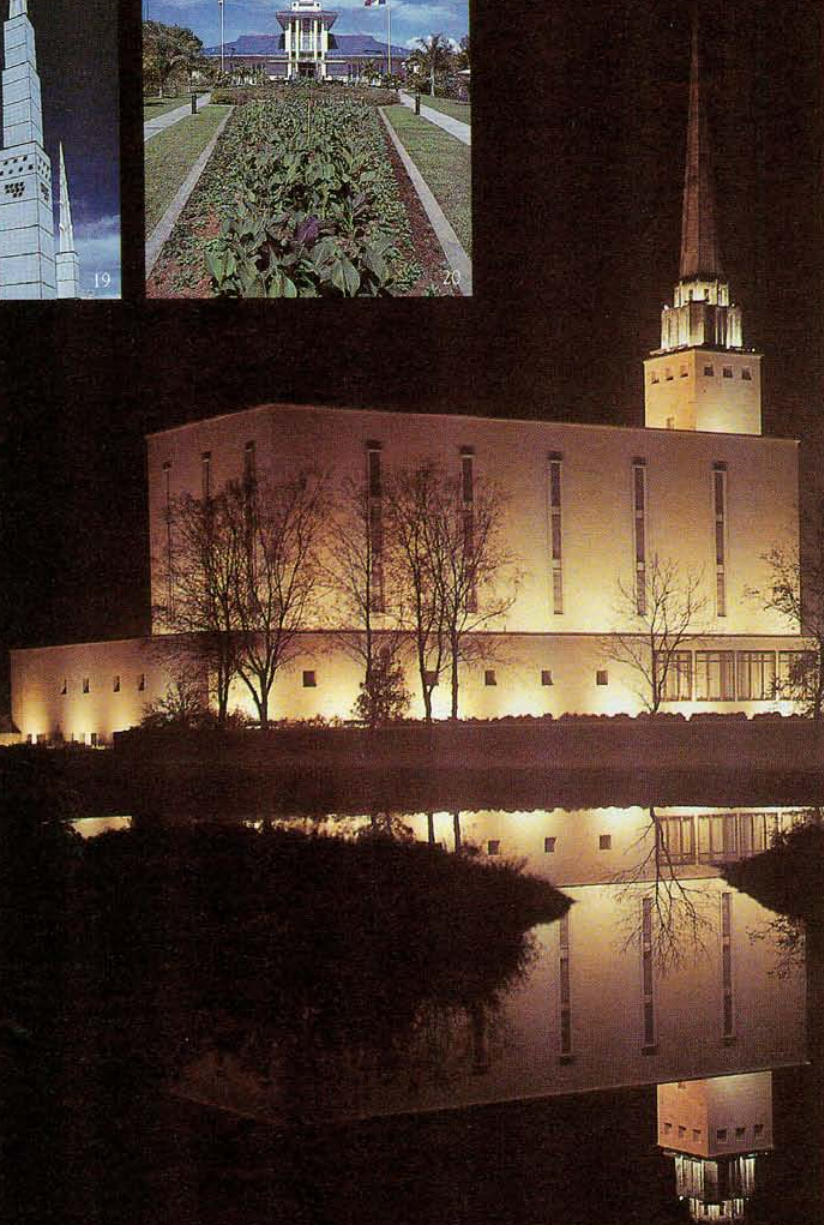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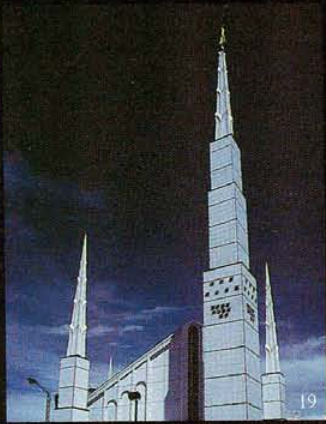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걷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흠뻑 위에 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교성 110:1-4)

“나는 할아버지[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보다 몇 발자국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우드럽 대관장님이 돌아가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 그는 바로 이곳 마루바닥에서 약 일 미터 상공에서 계시었다. 그는 마치 순금으로 된 판 위에 서 계시는 것같이 보였다.'



“할아버지께서는
구세주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손,
발, 얼굴과 아름다운 흰
옷에 대하여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모두 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희고 밝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이것이 네 할아버지의
간증이며 할아버지가 이곳
성전 안에서 실제로
구세주를 뵈고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대화하였다는
것을 직접 이 할아버지
입으로 너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엘리 영 폰드, 개인 일지)

“커틀랜드 성전 외벽의
석회를 준비한 사람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개인
컵과 중국 자기를 부수어 그
석회에 섞도록 기부해
달라고 했다. 중국 자기와
컵의 작은 입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벽에
마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석을 박은 것처럼
반짝거리게 하는 그 재료를
충분히 얻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중국 자기를 보관하는
벽장과 찬장은 거의 다 텅빈
상태가 되었다.” (이 세실
맥가빈,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0년 10월호, 595페이지)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이사야 2 : 2~3)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입하리니”(말 3 : 1; 니삼
24 : 1; 교성 36 : 8 참조)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마 26 : 55)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막 11 : 17)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9 : 13)

“나 니파이는 성전을
지었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의 모양대로
짓기는 하였으나 솔로몬
성전에 쓰인 바와 같은
진귀한 물건들을 그 땅에서
구할 수 없었던지라.
솔로몬의 성전과 똑같이

건립할 수는 없었느니라.
그러나 건축 방법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았으며,
지어진 솜씨가 대단히
훌륭하였더라.”(나이 5 : 16)

“이외에 말일의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는 데
참여하기 위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나오도록
예비된 훌륭한 영들도,
“…성전을 건립하여
그곳에서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의식을 집행하는
일에도 참여한
자들이었느니라.”(교성
138 : 53~54)

“주님께서 시은 건립을
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성전의 완성을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산의 이 계곡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의식을
명하셨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마가 이것을
훼방하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월포드
우드럽, 교리와 성약 선언문
1)

“우리는 성실한 이들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기 위해
성전의 기도실에서 주님께
여러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으며”
(교성, 선언문 2)

“거듭 이르기니와 진실로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성전
사업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을 계속하여 그치지
말라. 너희의 부지런함과
불굴의 투쟁 정신과
인내심과 너희의 일을
배가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는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성
127 : 4)

“너희가 기록하는 바는
모두 하늘에서도
기록되나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성 127 : 7; 마 16 : 19;
18 : 18 참조)□

성전 사진 : 1. 아리조나 성전 2.
솔트레이크 성전의 내부 장식 3.
시드니 오스트렐리아 성전 4. 유타
조단 리버 성전의 침례실 5. 동경
성전 6. 사옹파울로 성전 7. 유타
맨타이 성전의 인봉실 8. 스위스
성전 10. 알파와 오메가를 나타내는
유타 맨타이 성전의 채색 유리 11.
아피아 사모아 성전 12. 대북 대만
성전 13. 프라이베르그 DDR 성전
14. 누쿠 알로하 통가 성전 15. 에멘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를
보여 주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채색
유리 16. 하와이 성전 17. 산티비고
칠레 성전 18. 멕시코 시티 성전 19.
대북 대만 성전 20. 파피에이테이
타히티 성전 21. 영국 런던 성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다른 사람을 들어올려 주는 기쁨

로널드 이 폴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데 데이비드 비 헤이트가 1930년대 중반 어느 날 솔트레이크시티의 어떤 큰 백화점에서 젊은 판매 지배인으로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어떤 저명한 방문객이 그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 왔는데 그가 바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었다.

대관장은 헤이트 형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자리를 맡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물었다. 그 젊은이는 사실이라고 대답하면서 혹시 그랜트 대관장이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려나 하고 생각했다.

그랜트 대관장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라고 말씀하시고 충실한 말일성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유타주를 떠나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

십이사도 평의회는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분은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악수를 해주시고 나서 돌아서서 사무실에서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를 축복하셨다. 그는 사업에서 가족 생활에서 교회 봉사에서 성공하고 또 많은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다. 그는 또 조국을 위하여 봉사하여 제이차 대전때에는 미해군에서 복무했고 지역 사회에도 봉사하여 캘리포니아주의



팔로 알토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장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1930년 9월 4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루비 올슨과 결혼했으며 그들은 세 자녀를 키웠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지역 대표로 봉사했다. 그는 1970년 4월에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로 부름받았다. 육 년 후인 1976년 1월 8일에는 휴 비 브라운 장로의 사망에 뒤이어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죽음의 위기

과거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가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게 해준 영적인 성장과 인격 발달을 살펴볼 수 있다. 데이비드 브르스 헤이트는 1906년 9월 2일 아이다호주 오클리어에서 말일성도 개척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 마을은 은행가이며 감독이며 주 의원이었던

그의 부친 헉터 헤이트는 데이비드가 아홉 살밖에 안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다. 이 소년은 어머니 클라라와 형과 누나들에 의해 양육되었다.

그는 아이다호주 오클리어에서 평범한 작은 마을 소년으로 자랐다. 그는 두 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한번은 달리는 마차에서 튕겨 나와 전선주를 들이받았으며 한번은 작은 수영 구덩이로 다이빙 하다가 머리를 부딪쳤던 것이다. 그의 아들 로버트는 “부친이 만년에 봉사할 것으로 인하여 부친이 소년이었을 때 주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고 계셨다고

학생 시절의 어린 데이비드(아래), 대학 시절(상단 오른쪽), 루비 울슨과 데이비드 헤이트는 1930년에 결혼했다. (하단 오른쪽)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평생 동안 그를 잘 떠받쳐 준 그런 솔선 수범하는 태도와 정력은 그가 루비에게 구혼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그가 맨 처음 데이트를 신청할 때 그녀에게는 그날 밤 8시에 데이트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6시에 방문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매력적인 루비에게는 다른 구혼자들이 있었으나 그녀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데이비드였다.

새 문이 열림

루비는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남편이 직업상 어디로 가게 되든지 기꺼이 따라가라고 권고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다행이었다. 그들은 결혼 초기에 자주 이사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어릴 때 부친이 직장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그들의 생활에 영적인 힘과 지속성을 많이 부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딸 커렌은 “어머니는 굉장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데이비드 헤이트는 젊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정기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요청받는 대로 여러 가지 부름에서 즐겁게 봉사했다. 그러나 제이차 대전 기간에 그의 생애에서 적어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한 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가 된 순간이 왔다.

어느 쌀쌀한 날 밤 그는 샌프랜시스코만의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하와이로 가는 해군 비행기에 몸을 싣고 부두에서 있는 아내와 세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났다. 헤이트 부상령관은 시끄럽고 진동이 심한 비행기를 타고 캄캄한 태평양 상공에서 밤새 한잠도 자지 않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모두 다 부두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가족이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할 것을 원했다.

그는 자신이 교회 봉사에 몸바친 것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전쟁을 통하여 자기 생명을 잃지 않게 된다면 자신에게 어떤 부름이 오든지 받아들일 것이며 그 부름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하겠다고 주님에게 약속했다. 그의 아들 브루스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나타내며 어떤 면에서는 한쪽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여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주님이 요구하신 자질

그러나 그는 교회 직책을 스스로 구하거나 자신에게 부름이 와야 한다고 느낀 적은 한번도 없었다. 1951년에 십이사도 평의회의 마크 이 피터슨 장로가 스테이크 부장단을 개편하기 위하여 팔로 알토로 왔을 때 데이비드 헤이트는 감독의 보좌로 봉사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서열이 낮은 고등 평의원이었다. 그는 자신이 스테이크 부장단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 날 스테이크 부장으로 지지받았다.

루비 헤이트는 “남편은 팔로 알토 스테이크 부장으로 있는 동안 정말로 훌륭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성장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이크 센터와 몇 개의 예배당 건축을 감리했으며 부지도 여럿 구입했으며 현재 그 지역의 예배당 가운데 하나만 빼고는 모두 다 그때 산 부지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아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또 그 보답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했던 리차드 손(그는 헤이트 부장의 뒤를 이어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오클랜드 성전장이 되었다.)은 헤이트 부장이 “언제나 사람들을 칭찬했으며 늘 스스로 나서서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다.”고 회상한다.

헤이트 부장의 지도 방식은 한결같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라고 설명하고는 그들이 책임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가족의 재산

오늘날 그는 교회 전체를 통털어서 조직 내에서 신권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신권 평의회 및 정원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또 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팔로 알토에서 산 시절은 데이비드 헤이트에게는 굉장히 바쁜 시절이었다. 대단히 유능하고 많은 것을 성취한 부인의 사랑에 찬 내조는 그 가족의 큰 재산이었다. 그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적인 힘과 영원한 낙관적인 태도와 봉사를 사랑하는 것이 그 시절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틀림없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떤 부인은 그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면 남편이 많은 기간 동안 나가 있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싫어했을지도 모른다. 루비 헤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집에서 한가하게 있는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일, 바느질, 독서, 나 자신의 교회 활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루비 헤이트는 국민학교 시절에 자신이 늘 낙관적인 것에 대하여 친구들이 놀렸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러나 항상 모든 것에는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웃는다.

헤이트 부부는 모두 스스로 나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하루 밤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문이 열려 있었다. 딸 캐린은 이렇게 회고한다. “저는 대학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 우리 집에서 어떤 사람이 자고 있을지 또 누가 우리와 함께 식사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손님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온 말일성도 학생일 때가 흔히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교회 교리에 관한 깊은 철학적인 문제를 논하고 싶어했다. 캐린은 부친이 “복음은 단순해. 복잡하게 만들지 말게.”라고 자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놀라운 발표

그는 자녀가 성장하는 기간에 몹시 바빴으나 자녀는 자신이 등한시되고 있다고 느낀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 나아가서 자녀와 가까이 지내고 그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주었다. 캐린은 “부친은 언제나 제가 그의

생활에서 공주라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브르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부친은 높은 산악 지대로 가서 하이킹과 캠핑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휴가 기간에는 가족이 모두 일상 생활의 압박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만일 그들이 문명의 흔적을 단 하나라도 목격하게 되면 아직 충분히 멀리 간 것이 아니었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한다. “한번은 우리가 광야로 너무나 멀리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본 유일한 타인은 어떤 길을 잃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브르스는 부친이 이렇게 나갔다 오면 다시 신선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돌아오곤 했다고 말한다.

그는 팔로 알토 시장으로서 수많은 도시 개발과 공사를 했으며 그것이 오늘 날에도 팔로 알토에 필요한 것을 많이 해결해 준다. 그러나 그의 온화하고 선한 성품은 나아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친구가 되게 하는 데도 역시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그의 생활 표준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3년 어느 날 밤이 될 때까지는 헤이트 시장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헌신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비회원 친지는 극히 적었다.

헤이트 시장은 시 의원 모임이 끝날 때 시 관리와 시민과 기자들에게 안전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밤으로써 팔로 알토 시장으로서 또 시 의회 의원으로서 사임한다는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저는 물론 교회를 위하여 스코틀랜드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임을 끝내겠습니다.”

시 의회의 비회원 친구들은 그에게 가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 봉사하라는 부름이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으로부터 왔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헤이트는 결정해야 할 단 한 가지 남은 문제는 언제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지금 헤이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구세주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많이,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 종사했던 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후회하면서 뒤돌아보면 안됩니다.”

이십 사 년 전 그날 그는 손에 쟁기를 잡았으며 후회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본 일이 결코 없었다. 교회에서 더 높은 직책으로 여러 가지 부름을 받게 됨에 따라 봉사 기회가 더 많아졌다. 그러나 그는 책임이 커짐에 따라 가족에 대한 봉사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사실상 가족이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이 봉사했다.

그가 가족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방법 가운데에는 삼 분간 전화하는 방식이 있다. 사위인 존 헌츠먼이 와싱턴시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캐린은 자주 전화기를 들고 부친이 “와싱턴시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참되게 실천되고 있나?”라고 질문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들이 모두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곤 했다. 이렇게 전화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면 그는 그 특유의 낙관적인 태도로 “너희들은 해결해 낼 거야.”라고 확신을 주곤 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활동과 간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었다.

헤이트 장로의 손녀 한 사람은 가끔 전화를 받으면 할아버지가 “방금 전화 번호부를 뒤적이다가 네 전화 번호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때가 가끔 있다고 말한다.

사람을 대한 방법

그는 전화 거는 것 이외에도 선교사 송별, 결혼, 침례 등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각 개인을 대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은 헤이트 장로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는 로버트의 한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주님은 네가 감독이든, 스테이크 부장이든, 사도이든 상관하지시 않으신다. 그분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게 될 것이다.”

구세주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의 직책에는 물론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 헤이트 장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언제나 통로가 열려 있게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느껴 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의 뜻과 생각을 알기 위하여” 겸손하게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소속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성이 적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장 중요성이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부름을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전적으로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타고난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로널드 이 폴먼 장로는 헤이트 장로가 팔로 알토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할 때 팔로 알토 워드 감독단 보좌로,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또 스탠포드 워드 감독으로 봉사했다.



데이비드 헤이트는 미 해군의 장교로 근무했다. (중간 왼쪽) 지역 교회 지도자로서(왼쪽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과 함께) 그는 소속 지역의 교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중간 오른쪽) 헤이트 장로 부부가 가족 모임에서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아래) 야영과 낚시는 헤이트 장로의 좋아하는 오락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이 글은 1987년 9월호에 실린 데이비드 헤이트 장로의 인터뷰입니다. 그는 미 해군 장교로 근무하며 지역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족 모임은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야영과 낚시는 그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데이비드 헤이트 장로는 미 해군 장교로 근무하며 지역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족 모임은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야영과 낚시는 그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데이비드 헤이트 장로는 미 해군 장교로 근무하며 지역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족 모임은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야영과 낚시는 그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데이비드 헤이트 장로는 미 해군 장교로 근무하며 지역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족 모임은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야영과 낚시는 그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데이비드 헤이트 장로는 미 해군 장교로 근무하며 지역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족 모임은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야영과 낚시는 그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찰리

에일린 디 텔포드

그는 육십 팔 세밖에 안되었으나 훨씬 더 늙어 보였다. 그의 연약한 육체는 좁은 병원 침대 위에 묶여서 누워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가냘팠다. 그의 호흡 기관과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다. 이 환자는 찰리로서 내가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신 병원의 수술 병동에 있는 스무 명의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당직이 되어 출근했을 때 그의 담당 의사는 찰리가 죽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몇 시간 내에 죽을지 며칠 내에 죽을지 의학적으로 알아 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야간 당직 간호원으로서 나는 그의 가족을 부를 것인지 안부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종합 병원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가족을 불렀겠지만 이곳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이곳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러 해 동안 입원해 있었다. 가족은 그들 없이 지내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일부는 이미 돌보는 것마저 포기한 것이었다. 환자가 실제로 죽어 가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면서 한밤중에 가족을 부르는 것은 병원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나는 찰리의 침대 옆에 서서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면서 그를 다른 면에서 상상해 보려고 했다. 나이보다 더 늙고 육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쁘고 기억력을 포함해서 정신적인 기능을 상실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다른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행복한 아내와 웃고 있는 자녀와 함께 있는 젊은 남편으로서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나는 찰리와 그의 부인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 나는 그들이 지금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그가 죽을 때 함께 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들 사이에서 가로 막고 서 있었다.

나는 찰리의 부인을 불러야 할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소리내어 기도드렸다. 내 마음과 가슴으로 이런 말씀이 강하게 들려왔다. “당장 찰리의 부인과 접촉하라. 그는 새벽이 오기 전에 죽을 것이다.” 나는 찰리가 여섯 시간 이내에 죽을 것이며 그의 부인이 그곳에 오려면 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즉시 부인에게 전화해서 찰리의 상태가 나빠졌다고 말하고 그녀가 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그 부인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 부인은 “내일 수업에 참석해야 하며 잠을 자 두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나는 “그렇지만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 부인은 고통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은 이미 수 개월 동안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을 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어조를 부드럽게 하며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곳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무 늦을 것이었다. 나는 흥분한 어조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애썼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라고 그녀가 물었다.

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그 말은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남편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빨리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멈춘 후 “그렇지만 부인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그러면 아침이 되면 곧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의 대답에 실망했으나 그 결정은 그 부인이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다른 환자들을 점검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마음 속으로 그녀가 마음을 바꾸도록 기도했다. 십 오분 후에 그녀가 다시 전화했다.

그 부인은 “정말로 우리 남편이 죽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남편이 아침 이전에 죽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나는 잠시 멈춘 후 이렇게 대답했다. “의학적으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으로는 아침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은 “그러면 가겠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부인이 오기로 결정한 것이 기뻐했으나 그것에 관하여 생각할 때 걱정이 되었다. 그녀의 죽어 가는 남편이 자기 부인을 알아 보지 못하거나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른다.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다시 기도를 하고싶음을 느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이트 창고로 가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간구했다. 찰리가 최소한 그의 부인을 알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들 사이에 사랑이—말로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온화한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도록 기도드렸다.

그 부인이 도착한 시간은 새벽 3시였다. 나는 그 부인이 너무나 젊게 보이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그녀의 회색으로 변하고 있는 머리는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체격도 날씬하고 아담했다. 찰리는 팔십대 후반처럼 보이는데 그 부인은 오십대 초반같이 보였다. 그 부인은 함께 온 젊고 사랑스러운 여성을 소개했는데 그녀의 딸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찰리의 방으로 갔다. 그들이 그의 침대 곁으로 갔을 때 찰리의 공허한 푸른 눈에 빛이 스쳐가는 것 같았다. 팍 권 그의 주먹이 풀렸으며 그는 말을 하려고 애썼다. 그의 부인은 그의 옆에 의자를 당겨 앉고는 그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자 찰리가 미소를 지었다.

그 부인은 “남편이 나를 알아 보는 것 같아요.”라고 나직하게 외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찰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는 “저도 그것을 알겠어요.”라고 대답하고는 조용히 그 방을 떠났다.

나는 가끔 호흡과 맥박을 점검했다. 그런 기관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으나 찰리는 계속해서 평온하고 부드러웠다. 그것은 평소에 그가 보인 불규칙한 행동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부인의 감동적이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에 반응을 보인 것이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으나 대화를 했으며 그들 사이에 사랑이 흘렀다.

새벽 5시가 되었을 때에도 찰리는 아직 살아 있었다. 사십 오분 이내에 해가 뜰 것이다. 나는 찰리의 죽음에 대하여 염려하기 시작했다. 그가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부인과 함께

너무나 아름답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추억이 고통스러운 죽음과의 투쟁에 의하여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원했다.

곧 나는 그날밤 세번째로 시이트 창고로 들어가서 그의 임종이 다가오면 그의 생애가 조용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곳에 무릎 꿇고 있는 동안 평온한 느낌이 나를 감쌌으며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확신을 받았다.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보조원이 나를 찾아 왔다. 그는 “찰리씨 문제인데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그의 심장의 박동을 들으러 가면서 나는 간호원실에서 청진기를 꺼냈다.

찰리는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요하고 화평스런 표정이 서려 있었다.

부인은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눈을 감았어요. 그가 살고 있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조용한 그의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댔다. 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찰리씨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중에 나는 두 사람에게 팔을 두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팔을 통하여 전달하면서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찰리의 부인은 내 팔을 꼭 잡으면서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이 몇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

다섯 자녀의 어머니인 에일린 디 텔포드는 워싱턴의 에버렛 워드에서 상호부조회 교사이다.

여러 세기에 걸친 나의 사명

제리 엘 재카드

축

복사가 내 머리에서 손을 뗄 때 축복사도 나도 그 축복문의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빨리 또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되리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년,전 개종할 때 나를 감격하게 했던 그 교리 즉 나의 돌아가신 조상을 찾는 책임이 내가 받은 축복에서 구체적으로 세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나 혼자 교회에 입교했기 때문에 나의 계보를 작성하는 일은 너무 엄청난 일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축복사 축복을 받은 몇 년 후 불란서와 벨기에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도 계보 사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나에게 우리의 성인 Jaccard(재카드)는 흔히 있는 불란서 성인 Jacquard를 영어식으로 고쳐 쓴 것이라고 잘못 가르쳐 주셨으며 나는 불란서에 있는 동안 우리 조상에 관한 사항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선교 사업이 끝날 무렵 선교부장님은 나에게 벨기에의 브루셀에 있는 회원들이 계보를 찾고 성전 사업을 하는 일을 도와 주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나에게 “나는 계보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알고 있나?”라는 제목의 작은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 책을 처음 읽는 동안에 기고한 저자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중에 조셉 티 재카르트(Jacquart) 박사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름의 성씨도 나의 성과 똑같은 발음을 할 수 있는 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카르트 박사의 주소는 브루셀에 있는 벨기에 계보 및 인구 통계 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 센터로 전화를 걸어 재카르트 박사와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 그 센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재카르트 박사가 몸이 불편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센터의 책임자가 친절하게 그 건물을 안내하며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또 좀더 알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예, 다음 번에 열리는 우리 협회의 월례 모임에 오셔서 물론 계보에 관하여 강연해 주시겠습니까? 그 동안에 제가 재카르트 박사와 접촉해서 선생님의 가계도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동반자와 함께 그 약속된 날에 가서 그 강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비와 시청각 자료를 설치하는 동안 백발의 신사가 우리에게로 오셔서 인사를 건네셨는데 그가 바로 재카르트 박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불란서와 벨기에와 스위스의 계보 지도를





장막 저편에 있는
우리 조상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의
선교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 즉 나의
계보를 찾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사에게 통지하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서기 13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카드 가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모두 다 실린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테 크로익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이 조상들의 완전한 가계 그룹을 찾아 내어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성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돌이켜 보면

장막 저편에 있는 우리 조상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의 선교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 즉 나의 계보를 찾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족 사명”은 내가 구라파에서 이 년 반 동안 봉사한 것보다 훨씬 더 장구한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리 엘 제카드는 커패티컷주 하트포드 스테이크의 하트포드 제일 워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시고 Jacquard는 불란서 성씨이며 Jaccard는 벨기에 성씨이며 Jaccard는 스위스 성씨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Jaccard 가문에 관한 글을 썼으며 그 나라에서 나하고 친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주소를 좀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몇 주 후에 선교사 직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나는 스위스 베른에 사는 로버트 제카드 박사의 주소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아 갔습니다. 그는 즉시 나와 그의 친척 관계를 알아 내고 내가 알고 있었던 가계도에 관한 사항을 적으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불란서 베산콘에 있는 기록 보관소에 가서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베산콘은 제카드(Jaccard) 성씨가 시작된 스위스의 상테 크로익스 마을에서 바로 국경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나는 베산콘에서 나의 계보에 있어서 미국과 스위스 사이의 관계를 찾아 냈습니다. 내가 찾아 낸 것을 로버트 제카드

별로 활동적이 아닌 회원을 돌봄

칼로스 이 에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그들이 어떤 이유로 떨어져 나가 있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의 중요한 회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 서한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즉 교회를 인간의 육신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는 인간의 육신처럼 각 회원이 모두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하지 못하리라”(고전 12:21) 모든 회원에게는 무언가 공헌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약하게 보이는”, “덜 귀히 여기는” 또 “아름답지 못한” 회원에 관하여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부분을 가벼이 여기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회원은 모두 서로서로 똑같은 관심을 지녀야 합니다.

경전에서 이 말보다 더 신랄한 말은 별로 없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시편 142:4) 교회 회원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고 관심이 안가진다고 느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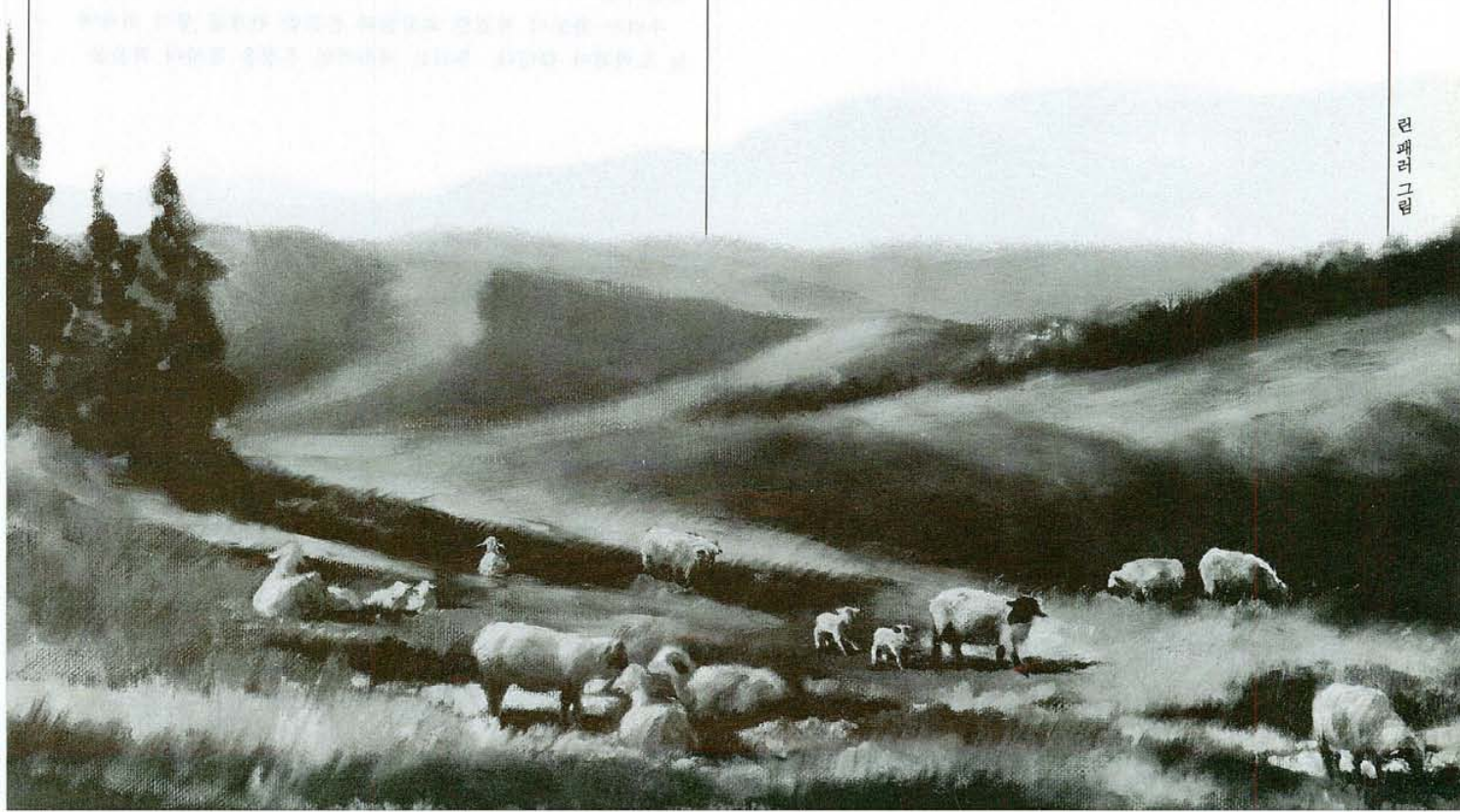
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내고 사랑하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권유할 것인지 알고자 할 때 잃어 버린 양, 잃어 버린 동전, 돌아온 탕아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눅 15장 참조)

잃어 버린 양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군중을 따라가고 있으며 어떤 단체이든 그에게 더 큰 관심을 보여 주는 단체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우리의 순수한 사랑과 관심과 우정에 응할 것입니다.

어쩌면 구세주께서는 은화처럼 소중한 영혼을 교사나



지도자가 등한시 했기 때문에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잃어 버린 동전의 비유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교사나 지도자가 자신이 돌보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등한시하거나 마음 상하게 한다면 그의 능력이 닿는 한 그 잃어 버린 영혼을 되살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탕아는 공공연하게 하늘 나라와 가정에 모반하는 사람을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탕아가 자신의 손윗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시도해 보고 싶어합니다. 어쩌면 그는 젊은이의 위험한 길을 가면서 발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가 왜 모반했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탕아의 영혼은 굉장한 가치가 있으며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호소와 끊임없는 사랑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와 접촉이 끊어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떨어져 나가 있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의 중요한 회원들입니다.

활동적이지 못한 회원의 느낌

별로 활동적이지 못한 회원이 종교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그들이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발견하도록 좀더 잘 도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에 대하여 느끼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거의 절반은 그래도 자신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비록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별로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회원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으나 그래도 자신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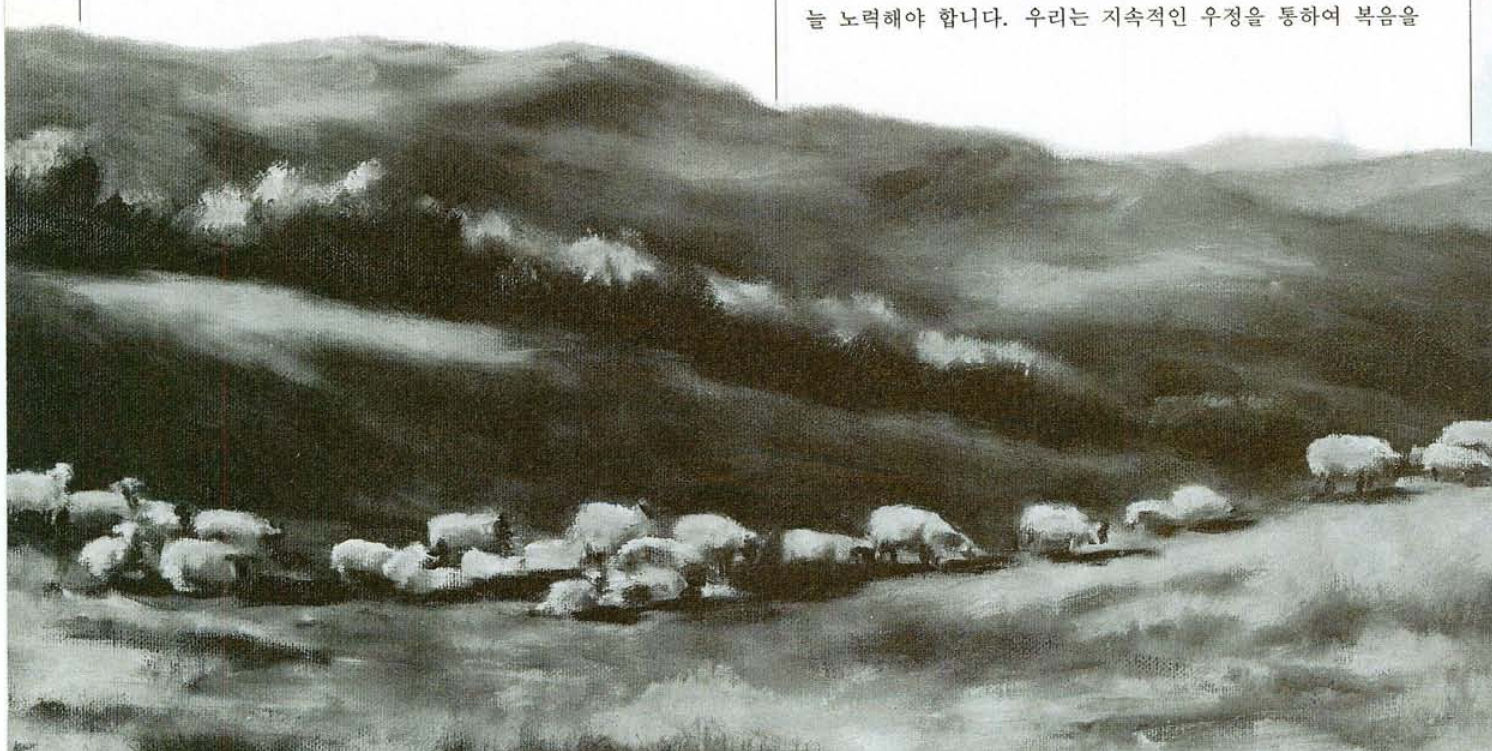
-그들은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며 따라서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듯이 가장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활동 회원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의 클럽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병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이 저조한 친구들이 복음의 실질적인 면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추상적인 원리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

활동이 저조한 회원은 위기나 시련의 시기에는 자신의 생활을 기꺼이 바꿀 마음이 아주 커질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가족에 아기가 태어날 때 복음 생활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심을 지닌 사람들과 서로 밀어 주는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좀더 마음을 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과 튼튼한 관계를 쌓기 위하여 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우정을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는 씨앗을 심고 영적인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웃과 그 활동이 저조한 회원은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교회 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관심을 가짐

좀더 약하고 상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영혼은 귀중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엘마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저희 형제들을 다시 당신께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엘 31 : 35)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관심이 적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조부인 예간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하여 집을 떠난 직후 우리 조모인 그의 아내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밤 스테이크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부르셔서 내가 스테이크 내의 비활동 회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권고하셨다.”

우리가 “그 잃어 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는 결심을 하고 한데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



경전에서 결혼 생활의 단합을 찾음

스펜서 제이 콘디

누구나 결혼에 있어서 때때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지혜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 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가끔 있다. 감독, 가족 또는 전문적인 카운셀러와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 줄 수 있으나 우리의 결혼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러 갈 가장 좋은 곳은 기도와 경전을 통하여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경전은 결혼에 관한 거룩한 권고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그러면서도 사용하지 않을 때가 흔히 있는 근원이다. 여기 우리가 좀더 화목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관계를 유지하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경전 구절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

하나가 됨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 2:24) 이 계명은 값진 진주의 모세서(3:24)와 아브라함서(5:8)에서 모두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한 몸이 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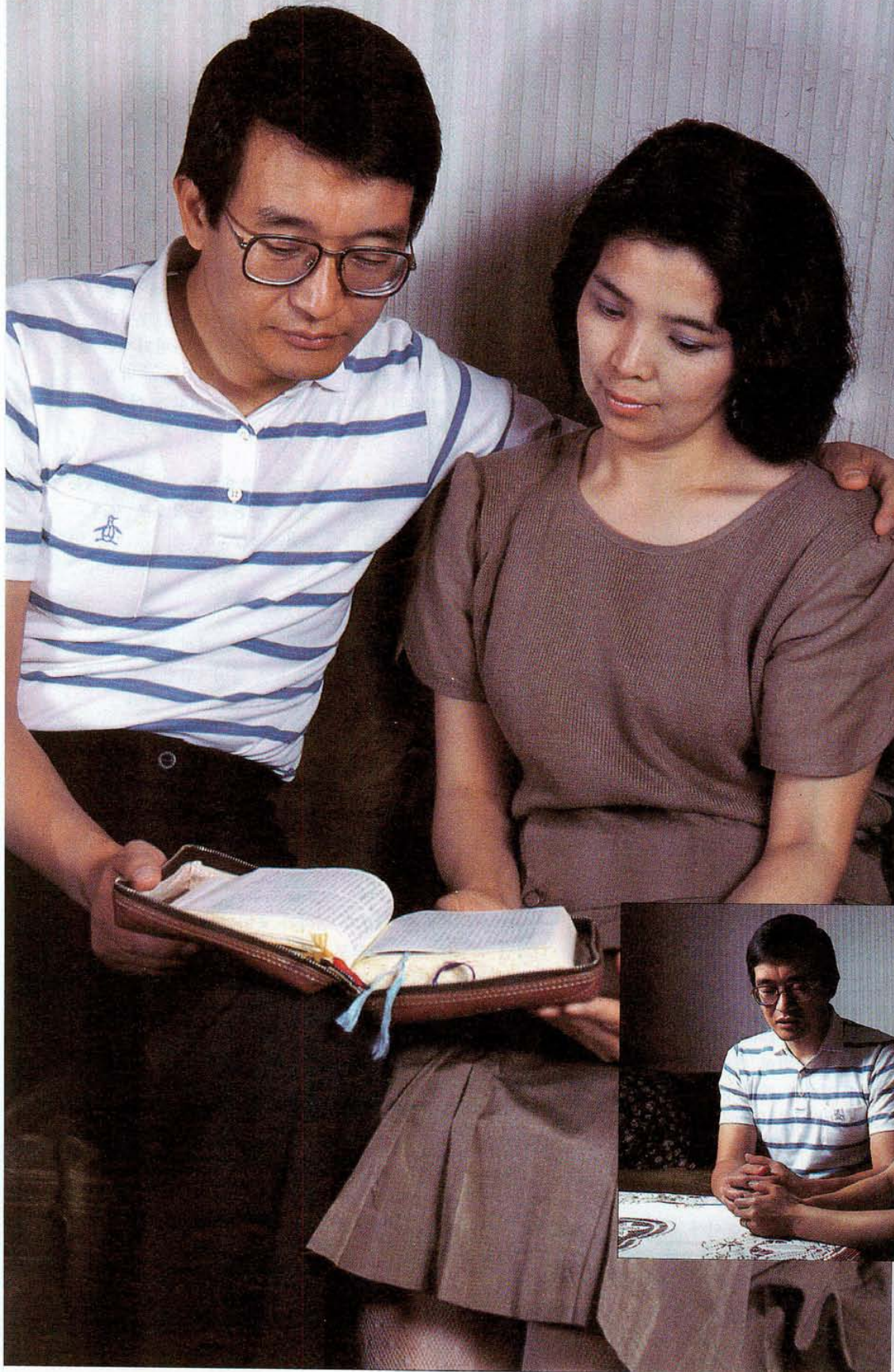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고린도전서 12:14, 21, 25~26)

비록 바울은 교회 회원들이 단합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으나 육체적인 단합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 단합은 부부가 상징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행복한 결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애정

구세주께서는 지상 성역이 끝날 무렵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이 이외에도 많은 경전에서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교성 42:45)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찌어다”(전도서 9:9)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고 권고한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시온의 모든 남편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와의 결합하지

도움을 받으려
갈 가장 좋은
곳은 기도와
경전을 통해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말라.”(교성 42 : 22)고 명하셨다.

부부가 좀더 온전히 또 꾸준히 서로를 사랑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할 때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다 해결될 것이다.

정서적인 정직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자신이 느끼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긴다. 그들은 배우자의 감정을 해칠 것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 공격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요일 4 : 18)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엨 4 : 15) 말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베냐민 왕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며, 남에게 흠족하도록 내어 줄 것이요,”(모사 4 : 13)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친절과 사랑 즉 “온전한 사랑”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감정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가까워질 것인가? 내가 내 감정을 비밀히 간직한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실제로 우리가 멀어질 것인가?” 때로는 나쁜 감정과 생각을 숨김으로써 부부 사이가 정서적으로 더 멀어지기도 한다.

반면에 사랑으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부는 비록 그런 감정이 실망과 낙담과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들의 차이를 해결하는 동안에 흔히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열쇠는 자기 감정과 느낌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이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손쉽게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면서도 세심하게 솔직하게 또 친절한 방법으로 자기 느낌을 전달해야

한다. 결코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독선적이어서는 안된다.

친구로서 차이를 해소함

아마 교리와 성약 121편이 차이를 해소하는 것에 관하여 경전으로부터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권고일 것이다. 비록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신권 권능 사용과 관련되지만 결혼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에도 적용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41~42절)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바울이 빌립보인에게 행한 훈계도 적절하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립보서 2 : 3)

마음을 같이 하여

바울은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빌립보서 2 : 2) 십구 세기의 사도인 올슨 프랫은 남편과 아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가르쳤다.

“사람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자질을 더욱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부인에 대한 사랑을 조금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의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 속의 생각과 느낌에 있어서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이 천국에 속하는 품성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사랑과 기쁨과 선의가 솟아나서 볼 때마다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확신을 갖도록 해주고 또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사랑을 낳고 행복은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비롯된 감정은 계속해서 더욱 더 커져서 마침내 완전해지며 영원하고 충만한 사랑 그 자체내에서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선견자, 솔트레이크시티 : 유진 와그너, 1960년, 156페이지)

영감에 찬 훈계를 받기 위하여 경전과 현대 예언자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결혼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

유타주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 사회학 교수인 스펜서 제이 콘더는 현재 휴직하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성전에 매료되곤
했다. 어린

소녀로서 나는 스네이크강의
강둑에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다호 성전을
바라보며 경외감을 느꼈다.
또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가 성탄 절기가 되면
동화 속의 나라처럼 작은
등으로 밝혀졌던 것도
기억한다. 어머니가 하얀
성전복을 정성스럽게
다리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성전으로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고대했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비활동 회원이 되었다.
나는 내 생활에서 교회를
중요하지 않은 자리로 밀어
냈으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교회로 돌아오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했다. 진실로 회개하게 되자
주님을 좀더 잘 알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게
되었다.

마침내 감독님은 내가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내가 엔다우먼트를 받는 그 오래
기다렸던 날이 닥쳐오자 내가 정말로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성전에서 댄을 성악에 맞추어
그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날 대부분을 그날 밤 모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보냈다. 나는 내가
입을 성전복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렸으며 숙모님에게 전화를 드려 함께
참석해 주시도록 다짐을 받았다.

숙모님은 이렇게 주의를 주셨다.

성전으로 이끌려 감

샤론 엠 하킨슨

“샤론, 실망하지 않기 바란다. 나는
성전에 여러 번 갔지만 아직까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숙모님께 다짐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럽고 외로운 비활동 상태가
계속된 후 이제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실망할 수 있을
것인가? 집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마음 속으로 흥분했으며
아마 천사들도 내가 가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랬을 것이다. 그날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분명하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수많은 눈으로 본 형제
자매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의 외로움이 사라졌다.

내가 문을 통과하자
백발의 남자 한 분이 “어서
오세요, 자매님”하고 환영해
주셨다. 불안하고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사라지는
가운데 눈물이 고였다.

“마침내 내가 여기 왔어.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야.” 모든 것이
올바르고 깨끗하고 밝고
무엇보다도 친숙하게
느껴졌다. 나는 열심히
주변을 돌아보며 그분이
나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것을 빌 것 같은
기대감까지 가질 정도였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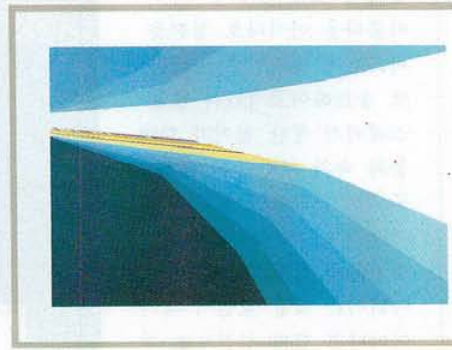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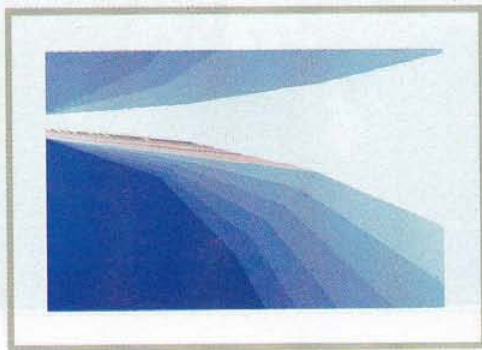
나는 그날 주님을 뵈시는
못했으나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꼈으며 내가 거룩한 땅 위를
걸었다는 것을 알았다. 정문을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나는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즉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영혼이 고결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속 깊은 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염원을 품고 있다. 우리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느낌을 늘 지니고 있다. 우리 아버지의
영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끌리고 있다. □

소렌 옛스버그

복음이 그의 인생 행로를 결정함

젠 앤더우드 편보로
부편집자



자신이 어떤 인생 행로를 택하게 될지를 아는 십대 청소년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소렌 옛스버그의 진로는 화가를 직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굳게 정해져 있었다. 그는 이미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팔아서 일 년에 약 삼백만원 정도의 돈을 벌고 있었다. 그는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인 부친의 필법을 따라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웠다. 사실 그는 크누드 옛스버그의 기법과 스타일을 너무나 충실하게 모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소렌은 또 생활의 지체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제자였다. 크누드 옛스버그는 1961년 교회에 입교했을 때 자기가 새로 발견한 신앙을 아들도 함께 갖도록 권유했다. 당시 만 십 육 세의 소렌은 종교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부친이 그 종교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소렌은 침례받기로 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항상 부친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부친이 어떤 것을 시키시더라도 저는 대부분 그대로 따랐습니다.”

소렌은 교회의 새 회원으로서 교회에 대하여서나 교회 가르침에 대하여 별로 알지 못했다. 첫달에는 교회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마침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을 때 그는 물론경에 관한 소책자를 한 권 읽었다. 그는 그 작은 책자로부터 물론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간증을 얻었다. 그런 인식으로 인하여 소렌 옛스버그의 인생 행로가 영원히 바뀌었다.

우선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는 물론경을 받게 된 지 불과 몇 주일밖에 안되었을 때 선교사 모임의 정규 연사로 부름받았다. 그 이후로 그는 지부장, 선교부 공보 책임자, 고등 평의원, 청남 회장으로 봉사했다.

“복음이 인생의 전부가 됨”

그가 코펜하겐(덴마크) 지부에서 그의 아내인 조나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또 하나 생겼다. 조나는 교회에 개종한 사람으로서 덴마크 왕립 음악 학교의 피아노 전공 학생이었다. 옛스버그 부부는 스위스 성전에서 인봉받았으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지금 소렌은 선교 책임자이며 조나는 슬라겔스(덴마크) 지부의 청녀 회장이다. 옛스버그 부부에게는 세 살부터 열 일곱 살까지의 일곱 자녀가 있다. 보통 가정에 자녀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는 나라에서 옛스버그 부부가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들이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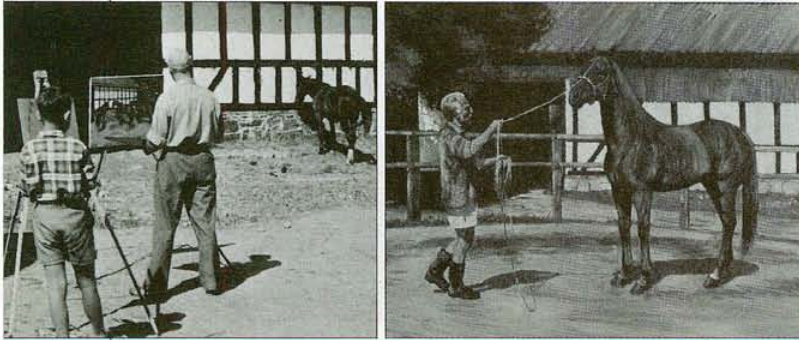
소렌 옛스버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변화 가운데는 그의 예술 진로의 변화가 포함된다. “복음을 배우게 되면 물론 복음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라고 금년 사십 세의 소렌이 이야기한다. 지금 그는 예술에 있어서의 성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대신에 자신의 예술을 주님을 섬기고 왕국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면으로
생각하도록 도움

예술을 통하여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자 그의 그림 스타일까지 바뀌게 되었다. 소렌은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오늘날의 인간들과 교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실주의적인 그림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인상주의 방식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는 추상화 방식으로 돌아섰으며 언제나 그의 그림은 애써 긍정적인 가치관과 복음 진리를 표출하고자 한다.

인생 행로라는 제목의 일련의 아크릴 그림에서 소렌 옛스버그는 선택과 진보의 주제를 표현하고자 한다. “분명하고 아름답고 평온한 색상”에서 그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즉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끄는 여러 길과 또한 영원한 진리의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옛스버그 형제의 작품은 국립 미술 협회가 덴마크 왕립 국민 예술 아카데미의 본부인 살롯텐보그 궁전에 전시해 왔다. 그의 그림은 구라파의 여러 궁전에 걸렸으며 그의 작품은 인기와 성공을 함께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작품을 얼마나 잘 팔리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상단 왼쪽) 어린 소년인 소렌이 여름 휴가 중인 그의 아버지 옛스버그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상단 오른쪽) 그 여름 휴가 중 어린 소렌이 그린 작품 중의 하나.

판단한다.

그는 경전에서 직접 영감받았기 때문에 그림 하단이나 뒷면에 "성구"를 적어 넣은 일련의 추상화 중 하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이렇게 회상하며 기뻐한다. "우리 이발사가 그 그림을 공개 전시회에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의 한 작품에 적힌 성구를 한 마디도 빼지 않고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작품은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소렌 옛스버그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겸양의 흔적도 있다. 그는 가장 최근의 작품을 설명할 때는 열의에 넘치게 된다. 그 작품은 인생의 행로라는 제목으로 된 일련의 추상화이다. 이 작품은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 보면서 사람들이 고속도로와 길을 다니며 온갖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행로를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을 원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행로로 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영원한 면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미술 평론가 협회 회장인 알렉산더 시리시 펠리시어는 옛스버그의 인생 행로가 실제로 추상화이지만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라고 이야기한다. 소렌의 중요한 목표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찬사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의 생활에서 종교가 별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덴마크에서 선교 사업을 할 기회는 그렇게 쉽사리 오는 것은 아니다. 소렌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교파'의 일원이 되면 그 사람은 별로 지적이지 못하거나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한 약한 사람이거나 그 '교파'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약당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소렌은 훌륭한 경험을 했으며 자기 가족 안에서 그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특별한 경험

크누드 옛스버그 가족 가운데 크누드, 소렌, 소렌의 누이인 버지테 세 사람이 교회 회원이었으나 그들의 부인과 어머니 커스텐 옛스버그는 확고하게 루터교에 남아 있었다. 가족과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 해 동안 그녀를 개종시키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크누드 옛스버그는 낙심했다. "어느 날 아침 부친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부친은 너무 슬퍼서 문앞에 울면서 서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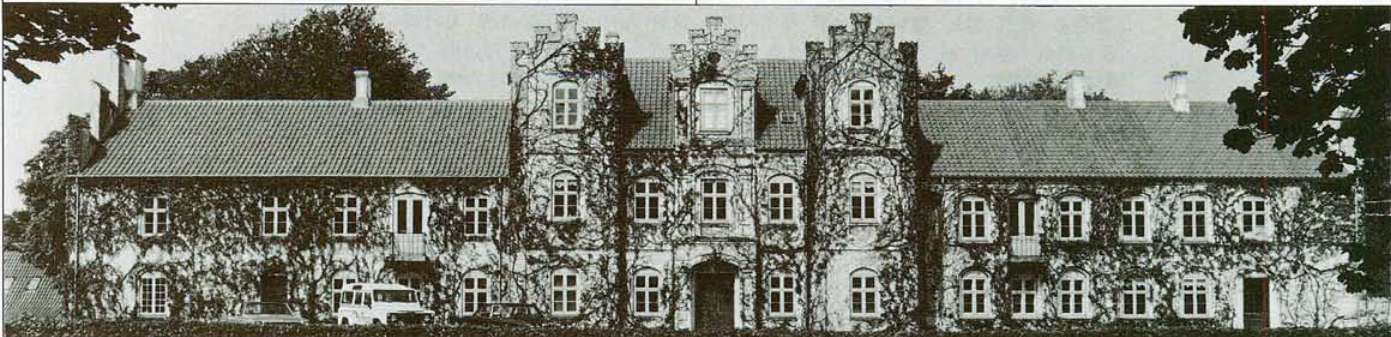
소렌은 자신에게 영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팔로 안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이제 회원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이 년 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소렌은 어머니를 방문했다. "약 십 분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지금 침례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모두 기뻐서 함께



올었다.

커스텐 옛스버그는 침례받은 직후 암에 걸렸다. 병이 악화됨에 따라 소렌과 누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어머니의 축복사 축복문에서는 어머니가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며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자녀와 인봉되지도 않았으며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도 없었다.

적용된다. 코펜하겐으로부터 약 이백 리 떨어진 아름다운 사백 년이나 된 성으로 된 옛스버그 가족의 집은 슬라겔스 지부와 코펜하겐 스테이크의 청소년 활동 장소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옛스버그 가족은 오십 명 남짓한 젊은이를 그들의 집에서 밤새도록 접대한 적도 있다. 덴마크의 전체 사회와 학교에서 세상적인 영향력이 상당한



마침내 의사들이 며칠 내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통제 이외에는 어떤 약도 더 투약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부친이 소렌을 찾아 와서 어머니를 다시 축복해 달라고 하였다. 소렌은 며칠간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 “나는 그 병이 신권에 복종하여 어머니가 이 생에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떠나라고 말할 허락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커스텐 옛스버그는 회복되었으며 스위스 성전에 가서 가족과 함께 인봉받을 수 있었다. 또 초등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다. 그런 후 병고침을 받고 일 년이 지난 후 다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그런 경험을 한 소렌 옛스버그의 우선 순위는 확고해졌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대한 나 자신의 헌신입니다. 둘째는 가족입니다. 셋째는 교회 부름입니다. 네째는 직업입니다.”

“특별한 부류는 아님”

소렌은 자신의 직업이 화가라고 해서 자신이 어떤 특별한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는 어떤 일이나 예술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일이든 형편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천재적으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예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최고로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는 옛스버그 형제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도 그대로

옛스버그 형제는 교회의 청소년 활동을 가능한 한 즐겁고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와 가까이 지냄

옛스버그 가족은 또 자기 자녀와 가까이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옛스버그 형제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의 스튜디오는 그의 집에 있다. 1986년 4월부터 그의 집 한쪽 모퉁이를 공공 화랑으로 사용하여 수많은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는 유타주 화가 특히 말일성도 화가의 작품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자녀가 복음과 가까이 머물러 있게 해주는 것은 계속되는 목표이며 도전이다. 옛스버그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덴마크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자녀가 행하는 모든 일의 일부분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과 간증을 매우 튼튼하게 쌓아 주어야 합니다.” 그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활에서 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책임을 완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소렌 옛스버그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술적인 목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그의 인생 행로 주제를 좀더 큰 벽화 형태로 시도하기 원하며 또 대리석, 유리, 수정 등의 자료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는 자기 자녀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영원한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코스를 굳건하게 따르고 있다.□

왼쪽) 소렌과 존나 옛스버그와 그들의 일곱 자녀. (상단) 옛스버그 집은 400년이나 된 성이다. 그곳에는 옛스버그 형제의 개인

기적을 행할

준비를 갖추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며, 경전을 매일 읽고 상고하며, 물몬경에 대하여 불타는 간증을 갖고 있는 청녀를 알려 주십시오.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세미나를 졸업하고, 청녀 표창을 받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청녀를 알려 주십시오! 미덕을 갖추고 개인적으로 순결하며 성전 결혼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는 안주하지 않을 청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현세와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 기적을 베풀 청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기적을 행할

준비를 갖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고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한 청년을 내게 알려 주십시오. 신권을 수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은 청년을 내게 알려 주십시오. ...세미나리반을 졸업하고 물본경에 대한 불타는 간증을 갖고 있는 청년을 내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한 청년을 알려 주시면, 선교 지역에서 그리고 일생을 통해 주님을 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청년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이 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의 영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원한 진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성취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마련해 갖고 계십니다.
2. 우리는 이 생에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3.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한 이해와 확신은 단번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간이나 다른
장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현재의
여러분의 생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을 해 나가시는 데 가장 좋은 것에
따라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십대이든지, 학생이든지, 선교사거나
신혼 부부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인생의 단계에 있든지,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또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명과 부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구세주를 알고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하면 도움이 될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성전 추천서를 받고 정직하게 그것을 소지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합니다.

2.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주의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자주 연구해 봅니다.

3.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읽습니다.

4. 적어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5.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생의 위치에서 시작하여 어떤 긍정적인 일-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재능을 발전시키고, 좋은 책을 읽는 등의 일을 합니다. 어떤 위대한 계사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시간이나 다른 장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현재의 여러분의 생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받아들이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돌아보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약 삼십 년 전 내가 통가 선교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선교부장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이 있을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은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조그만 섬입니다. 그곳은 둘째가 삼이 킬로미터쯤 되며 칠백 명 정도 사는 조그만 섬입니다. 영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곳이지요. 장로님이 그곳에서 가서 선교사 토론을 알게

되고 통가어를 말할 줄 알게 될 때까지 돌아오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가서 순순히 대처했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보급선이 태풍에 난파되어 실제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동반자와 나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생겨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일을 해 나가려 노력할 때, 또는 어떤 일을 그릇되게 해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임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을 때도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했으며,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 세 달 후에 그 조그만 섬을 떠났을 때, 나는 통가어를 배웠으며, 생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모든 지식과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실제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심을 안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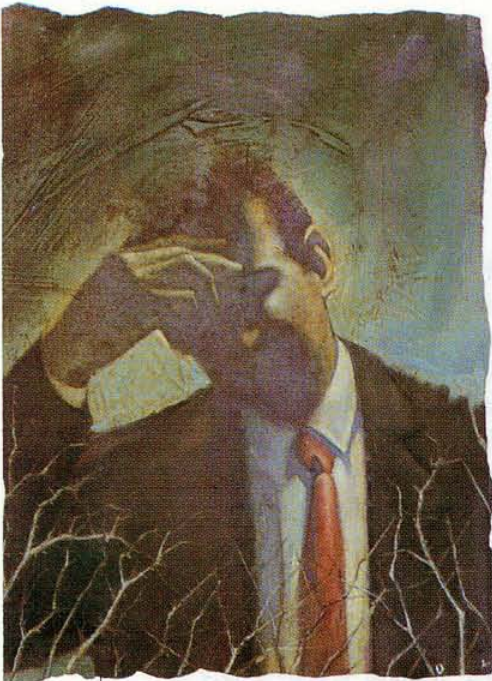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구속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신 실재의 인간, 참된 친구이셨음을 알았습니다. 구세주로 인해서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과 중국에는 깨끗하게 되고 흠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위한 사명을 갖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더 훌륭하게 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들어서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를 믿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나의 생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가 나에게 알려 주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성취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마련해 갖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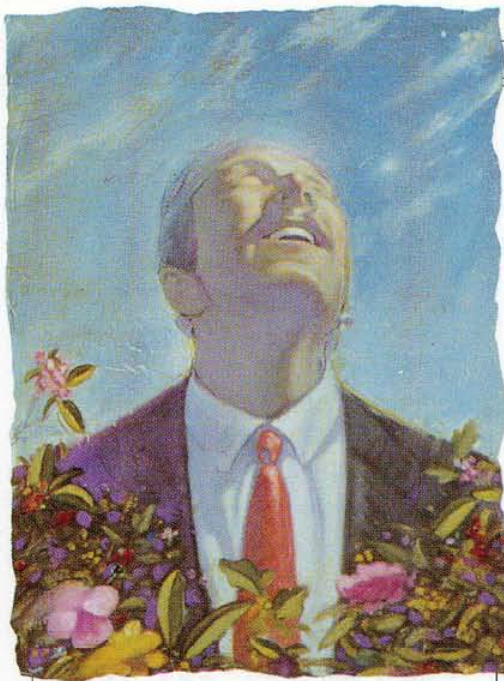


실망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역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경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경험을 누구나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비록 그것이 불유쾌한 것이 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선교 사업 지역으로 간 곳은 열 여섯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선교부는 선교사 수가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동반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지시받은 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끔 그러한 섬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만나, 그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조그만 보트를 타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우리 선교 본부가 있는 섬을 향해 노를 저어 가고 있을 때, 날씨가 갑자기 사나워졌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상당히 위험한 열대성 폭풍우에 휘말린 것을 알았습니다. 거대한 두



우리는 피했으면 하는 경험을 누구나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비록 그것이 불유쾌한 것이 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개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아쳐 오자, 선장이 보트에 타고 있던 우리 여섯 명에게 “배에서 뛰어 내리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바다로 뛰어들자 파도가 우리의 조그만 보트를 부수어 버렸으며,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갖은 예를 다 썼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우리는 우리가 앞서 떠나 왔던 조그만 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 시간 동안이나 헤엄을 친 후에, 우리는 드디어 지칠 대로 지쳤으나 살아서 해안가에 닿았습니다. 폭풍우는 곧 지나가 버렸지만 우리는 잔잔한 바다 위를 지나 우리 본부로 가는 길을 갈 수 있기까지 여러 날 동안 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과, 단단한 땅을 밟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망에 압박함을 느끼지 못하고서는 생을 이해하거나 감사하게 되지 못합니다. 이 커다란 경험은 나에게 생에 대한 새로운 모습과 감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바다에서의 경험이나 또는 내가 겪었던 다른 경험은 내가 굳이 선택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후에 느꼈던 행복과 기쁨의 상당한 부분은 소위 “원하지 않은 경험”이라고 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되돌아보는 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를 찾아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태도로 생활하며, 우리의 목표를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그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배가 지어진 목적

나는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그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구절이 우리 인생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도 있으나, 우리가 끊임없이 신체적인 안전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영적인 안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체적인 안정을 주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신앙의 참 본질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특별한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가슴이 불붙는 듯한 확신을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들은 매일같이 그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항상 이 “뜨거움”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릇된 일을 해서는 안되지만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내 생애에서 나의 가슴 속으로 뜨거움을 느꼈던 경우가 드물게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교부장을

임명할 때였는데, 그 당시 선교부장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강한 확신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히 나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을 버리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실을 다 수집하여, 어느 길을 따라 가기 시작했을 때, 그 결정이 그릇된 것(그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옳지 못한 것)이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예외없이 주님께서 내게 강조해서 알려 주시고는 했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것이니라. 그곳으로 가지 말라. 그것은 네게 좋은 것이

“마음 속에 뜨거운 느낌이 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그릇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한 나는 움직이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이서
32:3)

아니니라!” 여러분도 같은 속삭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속에 뜨거운
느낌이 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그릇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한 나는
움직이겠다. 만일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확신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나는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성장의
과정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을 성취하는
일부가 됩니다.

결혼과 직업의 선택

니파이이서 32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생의 길에 들어선 후에
어찌해야 할까를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하리라고 생각하노니, 보라
어찌하여 너희는 이 일을 마음에 담아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할 바를 모두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인생에서 여러분의
사명과 부름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대답과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확신에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즉 배우고 결혼할 것이며,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심사 중에서 첫번째의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다면, 남녀
상호간에 사랑하는 감정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필경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결혼에 관한
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시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느낌이 상호적인 것이 아닐 때는,
그러한 결혼에 대한 훌륭한 생각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이 그것이 옳다고 느낄
때는(그것이 단번에 오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그에 대하여 투쟁을
벌이려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강요하거나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세와 영원을 통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번째 관심사인 직장 또는 직업에
관해서도,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일반적인 지침 안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을 이루는 모든 요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

나는 통가 섬에서 어느 한 부부가
그들이 함께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 젊은 선교사 시절의 나는 항상 선교사들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갈 때마다 나는 그들이 경전을 읽거나, 선교사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거나, 이웃집 아이를 보아 주거나 또는 상호부조회 공과를 준비하는 등 그러한 봉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지 못했으나,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곤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내가 선교부장이 되어 통가로 되돌아갔을 때, 루이자라는 과부 노인을 방문해 보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소를 받아 본 나는, 그 부인이 내가 여러 해 전에 것처럼 고맙게 생각했던 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우리는 부인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나는 거의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말끔하고 깨끗한 집이었으나, 매우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집안으로 걸어 들어 가던 나는 그 부인이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인이 손을 내어밀 때 나는 그녀가 장님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인을 껴안은 나는 뼈와 가죽만 남은 그 부인이 이 생에서 지낼 날이 많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부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이 오히려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부인은 친절히 말써서 자신은 부자이고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약간 혼란되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인과 그 남편은 뉴질랜드 성전으로 갈 항공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늘 모았으나, 그 때마다 그 돈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 주곤 했다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니.”(교성 6:7)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모두 밝혀져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이자 자매님, 자매님은 어떻게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매님은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건강도 좋지 않고, 가난한 집에서 살고 계시고, 성전에도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은 내 질문을 막고서 주님께서 그녀의 삶을 기쁘게 여기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부자라고 나에게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곧 내 남편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서는 내가 한 일을 기쁘게 여기시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교리와 성약 6편 7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요 다만 지혜를 구하여야 하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니, 그리하면 부한 자가 되리라. 보라, 영생을 가진 자 그라 곧 부자니라.”

루이자는 그녀의 사명과 부름을 찾아 낼 시간을 가졌으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것의 진리를 명백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사명을 마련해 두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찾아내어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

브리감 영 대학에서 행한 영적인 말씀에서 발췌한 것임

그리스도를 이야기함

비비안 하머

내가 막 거리의 모퉁이를 돌아설 무렵에 내가 탈 버스가 정거장에 다가서는 것이 보였다. 나는 보행자들 사이를 뚫고 달리며, 있는 힘을 다해 달려 출발을 시작한 버스 위에 올라탔다.

영국 만체스터에서는 밤에 이 시간 쯤 되면 언제나 만원이었으나, 나는 개의치 않았다. 로열 노던 음악 대학에 다니던 나는 영국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혼잡한 버스에 올라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기회를 기대했었다.

나는 드디어 어떤 소책자를 열중해서 읽고 있는 아름다운 여학생 옆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용히 자리에 앉았으나, 그녀가 읽고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오!”라는 제목의 종교 책자였다. 그 페이지 아래쪽에서 나는 “우리는 자신의 신앙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글을 읽었다. 눈길을 들어 본 나는 그 여학생이 나에게 호기심에 찬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았다. “아, 미안해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 소책자에 눈길이 끌리게 되었군요. 당신은 종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 아니에요!” 그녀는 강하고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고 있어요! 나는 그저 재미로 읽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어떤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그런 식의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주저했다. “저, 나는... 나는... 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시다!” 그녀가 큰소리로 외쳐서 버스에 탄 몇몇 다른 승객들이 몸을 돌려 우리를 쳐다 보았다. 그러더니, 조금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무슨 교회에 다니세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나는 물론입니다.”

“어머나!” 그녀는 속삭이듯 외치더니 눈에 두려운 빛이 감돌며 내게서 몸을 비켜 나갔다. “아, 나는 물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아닙니다! 전에 두 사람의 목론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들을



들어오게 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 보게 했는데, 우리가 그때 말한 것이라고는 모두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에 관한 것 뿐이었어요. 나는 그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녀가 너무나도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므로 나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즉시 나는 나 자신이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말하고 왜 그가 참된 복음의 회복과 그렇게 중요한 관계를 갖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계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말했으며 오늘날 지상에 살아 있는 예언자에 관해서 간증을 했다.

그녀는 얼마 동안 예절바르게 듣고 있더니, 사과하면서 일어났다. “미안해요. 나는 여기서 내려야 해요. 당신과 이야기하게 되어 좋았어요. 그러나 내가 물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말을 하고는 그녀를 바라보는 나를 남겨 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리고 그날 밤에 내내 그 여학생과 말일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그녀의 그릇된 신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의 교회에 속해 있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대답 아니면 적어도 어떤 위안을 받을까 하는 바람에서 경전을 펼쳐 보았다. 나는 물론경을 들고 구세주에 대한 아름답고 분명한 간증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니파이서 25:26)

나는 영국에서 공부를 해 왔으므로, 교회에 관해서 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는 유타주와 브리검 영 대학에 대하여, 개척자와 예언자들에 관하여, 가족과 재능 개발과 식량 비축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나는 요셉 스미스와 복음의 회복과 사명과 경전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가?

나는 그날 밤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이 복음과 교회가 참된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근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나는 또한 내가 버스에서 본 그 여학생을 다시 보게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과 나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해 줄 수 있기를 기도했다.

나는 바로 그 다음날 같은 버스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 기뻐했으며, 우리는 날씨와 나의 음악 공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그녀가 내릴 정거장에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초조하게 몸을 돌려 말했다. “내가 어제 우리 교회에 관해서 말할 것이 있었는데 깜박 잊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유창하거나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은 아니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간증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요.” 하고 나는 말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진리에 너무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 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빨리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요.”

나는 니파이서에서 있는 성구를 말해 주고 물론경은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말했다.

버스가 서자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 여학생은 나를 보지도 않고 일어나서 그들 속에 끼어 들었다. 그러나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내가 있는 곳의 창가로 와서 “감사해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집에 가서 바로 장로들을 불러 침례를 받겠다고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교회이며 그에게 예배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버스에서 내린 것은 분명했다.

나는 우리가 항상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상기시켜 준 니파이의 힘있는 말씀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렸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훌륭한 축복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으로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

